

음악교육의 본질에 기초한 유아음악교육의 방향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Direction of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Based on the Essence of Music Education

임혜정* · 박형신**

Hye Jung Lim · Hyoung Shin Park

초록 본 연구는 음악교육의 본질에 기초하여 볼 때 유아음악교육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현대의 음악교육은 절대표현주의의 관점에 따라 심미적 음악교육을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유아음악교육의 현실은 음악교육의 본질에 초점을 두기보다 유아의 발달에 대한 공리적 유용성 등 부차적 효용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향후 유아음악교육 연구자들은 본질적 가치에 관한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교사양성과정에서는 확고한 음악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한 유아음악교육의 방향 제시와 심미적 음악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사교육을 통하여 교사의 음악교수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음악교육, 음악교육의 본질, 유아음악교육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what the direction of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should be based on the nature of music education. After analyzing relevant literatures, it was found that the essence of modern music education is to pursue aesthetic education that emphasizes aesthetic experience from the perspective of absolute expressionism. However, the reality of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in Korea is found to have sought to gain utilitarian usefulness as well as secondary benefits of child development, rather than to have put focus on the essence of music educ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further study on the essential value of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In addition, in the teacher training process, teachers' teaching competency for music needs to be developed by presenting a clear direction of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based on a solid music education philosophy and by providing various forms of teacher education to practice aesthetic music education.

Key words: music education, essence of music education,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 First author, E-mail: heajunglim@hanmail.net

Professor, Sangji University, 83, Sangjidae-gil, Wonju-si, Gangwon-do, Korea

** Corresponding author, E-mail: odrihs@gwnu.ac.kr

Professor,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150, Namwon-ro, Wonju-si, Gangwon-do, Korea

I. 서론

음악의 본질적 가치는 음악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이며 이것은 인간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준다(Copland, 1959). 이는 음악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음악 예술은 인간의 삶에 이로운 것이고 삶의 의미를 풍부하게 해주며 삶의 경험을 강렬하게 해준다. 때문에 교육을 통하여 이를 공유하여야 할 만큼 인간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인식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대부분의 철학자들과 교육자들 사이에서 널리 받아들여져 왔다. 뿐만 아니라, 음악은 도덕적 인간, 사회적 인간, 건강한 인간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어져왔다. 그렇다면 음악교육의 본질은 무엇이며 유아음악교육의 가치는 무엇일까?

유아음악교육은 학문적으로는 유아교육과 음악교육의 두 영역을 포함하나 현재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에서는 유아음악교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학의 학과나 대학원 과정이 없다보니 유아음악교육은 때로는 유아교육의 한 분야로, 또는 음악교육의 한 분야로 취급되어왔다. 따라서 유아음악교육은 사실상 충분한 학문적 입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상황은 해당 분야의 발전과 질적 향상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Lim,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 유아음악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져 관련 분야의 연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현상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유아음악교육의 본질과 가치는 무엇인가, 유아음악교육의 의미와 가치는 음악의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가, 아니면 실리적, 공리적 혜택에 방향을 맞춘 도구적 가치를 지향하는가, 유아음악교육의 본질과 목표는 무엇이며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유아음악교육은 음악의 본질에 부합하는가와 같은 근본적 질문에 답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유아음악교육의 의미와 목표 등 유아음악교육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은 유아음악교육의 모든 과정을 통제하는 근본 철학이기 때문이다. 유아음악교육에 대한 철학은 유아음악을 연구하는 이는 물론이고 유아교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유아교사에게 있어서 유아음악교육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신념은 음악교육의 계획부터 실행과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제하므로 이는 교사의 교수능력이나 기술 또는 태도 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음악교육 연구에 있어서 유아음악교육의 본질과 가치추구에 관한 관심은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출판된 유아음악교육 관련 연구 중 음악교육의 본질을 다룬 연구는 한 건도 찾아볼 수 없다. 또 유아음악교육이 음악교육의 영역아래 있음을 고려하여 음악교육의 본질에 관한 연구들을 살

펴본 결과에서도 음악교육의 본질 추구와 관련된 연구는 5편(Kim, 2000; Kim, 2010; Lee, 1990; No, 2000; Park, 1993)뿐이며, 음악교육의 본질을 논함에 있어 ‘심미적 음악 교육’에 관한 연구는 8편(Byun, 2008; Kim, 1997; Kim, 2009; Lee, 1994; Lee, 2018; Sung, 2011; Yoon, 2003; Yoon, 2008) 정도였다. 음악교육의 본질과 심미적 음악교육에 대해 고찰해보는 것은 유아음악교육의 현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음악교육의 본질에 기초한 유아음악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음악의 본질에 관한 미학적 관점과 이에 근거한 음악교육의 본질과 의미와 목적을 살펴본 후 이에 따라 우리나라 유아음악교육의 현 실태를 조망해보고 음악교육의 본질에 기초한 유아음악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음악교육의 본질

1. 음악의 본질에 관한 현대의 미학적 관점

유아음악교육의 본질을 논할 때 우리는 음악교육의 본질을 간과할 수 없으며 음악교육의 본질과 가치는 예술로서 음악의 본질과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음악의 본질에 관한 미학적 관점들 중 예술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어디에서 찾아야하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1956년 마이어(L. B. Meyer)에 의해 발표된 ‘절대주의(Absolutism)’와 ‘지시주의(Referentialism, 어떤 번역은 관련주의로 명명함)’의 관점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다(Reimer, 1989). 그의 견해에 따르면 지시주의는 예술작품의 의미와 가치가 작품외부에 있다고 보아 음악이 음악 외적인 목적에 기여하는데 반하여 절대주의는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작품 자체에 두는 것으로, 이는 예술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소리의 형식적인 구조에서 찾고자 하는 ‘절대형식주의(Absolute formalism)’와 예술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예술작품의 미적 특질에서 찾되 그러한 미적 특질들을 대중 모두에게 인식시킬 수 있다고 보아 미적경험을 증시하는 ‘절대표현주의(Absolute expressionism)’로 나뉜다.

20세기 중반의 마이어의 이러한 주장을 기반으로 하여 현재까지 음악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대표적인 미학적 관점들은 관련주의(Referentialism), 형식주의(Formalism), 표현주의(Expressionism), 절대표현주의(Absolute expressionism) 네 가지로 정리된다(Kwon et al., 2011; Lee, 1990; Lee, 2019; Min et al., 2010; Yoon, 2003; Yoon, 2008).

관련주의(Referentialism)는 음악이 어떤 음악 외적인 목적을 위하여 의도되어 작품 밖의 사물과의 관련성에 그 가치를 두는 것이 특징이다. 관련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음악예술의 가치는 음악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실용적 목적들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데 있으며 그 예로는 음악을 통한 국민정신의 함양을 위한 음악, 치료요법이나 상업용 음악, 종교음악, 군가 등이 여기에 속한다(Min et al., 2010).

형식주의(Formalism)는 19세기 미학가인 한슬릭(E. Hanslik)을 중심으로 발전한 이론으로 예술의 의미는 예술작품 그 자체에 있다고 보고 예술작품의 형식적 특성에 가치를 둔다. 그러므로 음악의 예술적 구성 그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며 음악 외적인 면을 배척한다(Min et al., 2010). 형식주의자들은 음악의 구조를 바르게 이해해야 음악의 참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며 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이 요구된다고 보아 소수의 음악적 엘리트 교육을 강조한다(Kwon et al., 2011).

표현주의(Expressionism)는 듀이(J. Dewey), 랭거(S. Langer), 레너드(C. Leonhard), 마이어에 의해 대변되는 것으로 예술작품의 미적 가치와 의미는 인간이 체험하는 일상의 경험에 있다고 보아 음악이 표현하고자 하는 음향의 상징적 의미에 큰 관심을 갖는다(Lee, 1990; Langer, 1951). 랭거는 ‘음악적 패턴은 음(Sounds)과 침(Silence)으로 이루어진 인간 감정의 음향 언어적 표현’이라고 보았다. 표현주의자들은 음악이 인간 삶의 경험과 유사한 빠름과 느림, 썸과 여림, 긴장과 이완 등의 역동적 상태와 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의 존재나 삶의 느낌을 의미화 하는데 적절하다고 본다. 그들은 음악을 언어가 아니라 삶의 흐름결의 상징의 형태로 보았다(Langer, 1953).

절대표현주의(Absolute expressionism)는 예술의 의미와 가치가 작품의 형식미적 질에 있다는 형식주의의 주장과 예술작품의 심미적 요소들은 모든 인간의 경험에 내재하는 질적 속성과 유사하며 음악은 인간의 경험과 느낌을 소리라는 음악적 매체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표현주의의 관점을 절충시킨 미학적 이론이다(Reimer, 1989). 절대표현주의가 주장하는 음악예술의 미적 의미는 소리를 통해 어떤 느낌과 정서를 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전체적인 표현형식에 의해 표상적·상징적으로 경험되는 것이다. 즉, 리듬, 가락, 화성, 음색, 성부조직, 빠르기, 썸여림, 형식 등과 같은 음악요소들의 총체적인 구성에 의해 음악적 의미와 정서가 표현되는 것이기에 감상자는 이러한 음악적 요소의 형식적 속성에 의해 파생되는 미적·정서적·음악적 의미를 지각하고 반응하며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Reimer, 1987). 음악작품 속에 내재된 미적 요소를 직관과 통찰력을 통해 그 미적 의미를 경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음악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표현주의자들은 음악학습을 통한 심미적 감수성 개발을 중시한다. 이것이 ‘심미적 경험’이며 ‘심미적 경험의 발달’은 절대표현주의가 주장하는 음악교육의 가장 중

요한 목적이다(Reimer, 1987).

2. 심미적 음악교육

음악교육의 본질은 음악의 본질에 기인한다. 따라서 음악의 본질을 다루는 학문인 미학에 대한 이해가 음악교육철학 체계의 기초가 된다(Reimer, 1989). 음악의 본질에 관한 미학적 관점들 중 절대표현주의는 듀이(Dewey, 1934), 랭거(Langer, 1942) 등의 철학자와 마이어(Meyer, 1956), 레너드(Leonhard & House, 1972) 등의 음악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러한 주장은 어느 이론적 학파보다 미학자, 예술가, 특히 음악교육자들에 의해 보편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민주주의 사회의 대중 교육에 가장 적절히 부합되는 이론으로 제시되고 있다(Lee, 1990; Min et al., 2010; No, 2000; Reimer, 1989).

리머는 1970년 그의 저서 음악교육철학(*A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에서 음악의 본질과 가치를 절대표현주의 미학 이론에 근거하여, 심미적 음악교육철학을 정립함으로써 현대 음악교육철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는 참다운 음악교육의 본질은 미적 교육이 되어야 하며 음악교육의 목표는 ‘심미적 음악교육’이라고 주장하면서 음악교육에서의 미적 경험을 가치화하였다(Kim, 2012, 2013; Lee, 1990; Mark, 1996; Min et al., 2010; Reimer, 1989; Yoon, 2003; Yoon, 2008). 심미적 음악교육은 학습자가 음악이 지니고 있는 심미적 속성과 표현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데에 큰 의미를 둔다. 이는 인간의 감정을 훈련시키는 교육활동으로, 심미적 음악교육에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음의 특질에 대하여 지각하고 반응할 수 있는 음악적 감수성을 계발시켜 음악의 아름다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미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에 의미와 가치를 둔다(Min et al., 2020).

1970년대부터 지지를 받아오던 리머의 음악교육철학은 90년대에 들어서 ‘실천주의’에 의해 도전을 받게 되었다(Ju, 2013). 1995년에 리머의 제자인 엘리엇(D. Elliott)은 자신의 저서 *Music Matters*를 통하여 기존의 심미적 음악교육을 중시하는 절대표현주의에 대하여 새로운 음악교육철학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의 음악 이해’라는, 행위를 중시한 실천주의 음악교육철학을 주장하였다(Elliott, 1995; Kim, 2018). 그에 의하면 음악은 순수한 소리의 예술도, 심미적 예술도 아니며 구체적인 실천, 실행의 음악행위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예술이다.

이에 대하여 리머는 2003년 그의 저서 *A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제3판을 통하여 심미적 음악교육철학의 전제적 미학인 절대표현주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철학의 관점들 가운데 의미 있는 내용을 그의 철학체계에 수용하려고

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을 통하여 ‘경험중심 음악교육철학’을 제시하였다. 리머의 ‘경험중심 음악교육’은 심미적 음악교육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음악교육의 실용적, 실천적 관점을 인정하고 문화적 맥락에서 음악의 의미를 발견하려 하여 그동안 자신의 철학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다문화주의, 대중음악 그리고 다양한 하위문화를 포함하여 창의성, 지능 등의 음악교육의 담론을 포괄하고자 하였다(Reimer, 2003). 그러므로 이것은 그가 주장하였던 ‘심미적 음악교육’이라는 음악교육의 본질이 훼손된 것이 아니라 음악교육의 본질에 대한 철학에 자양분을 더하여 가져온 철학적 발전 과정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리머의 심미적 음악교육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현대의 가장 지지받는 음악교육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심미적(審美的)’이란 아름다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서 아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앎’이란 음악이 가진 음의 특질에 대하여 지각하고 반응할 수 있는 음악적 감수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감정과 인식이 포함된다. 리머는 이러한 음악적 감수성의 계발을 ‘느낌의 연습’이라고 말한다. ‘아름다움에 대하여’라고 할 때 음악에서의 아름다움이란 외부의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음 자체에 내재되어있는 미적 특질을 아름다움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심미적 음악교육’이란 학습자가 음악이 내포하고 있는 미적 속성을 느끼고 이해하는 것이 그 핵심이며, 여기에서 미적 속성이란 음악이 지니고 있는 심미적 속성인 음의 특질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높이, 길이, 음빛깔, 셈여림을 비롯하여 빠르기, 형식, 화성 등이 포함된다(Lim, 2013; Min et al., 2010; Reimer, 1989). 그러므로 음악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음악적 감수성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음의 특질에 대한 지각과 반응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해보는 ‘심미적 경험’이 수반되어야 한다.

리머는 ‘인간은 예술작품의 미적 특질을 통하여 감정의 경험을 얻으며 그 경험이 곧 감정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하는 길이다.’라고 주장하며 심미적 음악교육을 ‘느낌과 통찰의 교육’이라고 말한다(Reimer, 1989). 어떤 음악이라도 그 작품이 표현하고 있는 예술적 속성, 곧 느낌은 완성적인 것이 아니라 열려있고 미완료적인 것이며, 학습자 개인이 완성해간다는 의미에서 심미적 교육은 느낌의 교육이다. 또한 음악교육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직접경험에 의존하며 말이나 글로 설명될 수 없는 경험으로 오직 음악 속에서만 존재하고 음악으로 표현되는 경험이라는 점에서 심미적 경험을 추구하는 심미적 교육은 통찰의 교육이다(Kwon et al., 2011).

한편, 리머에 따르면 심미적 경험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특성을 가지므로 인간의 삶에 기여한다. 첫째, 음악작품은 인간의 삶의 형태나 그것에 대한 느낌의 영향적 표현이므로 음악의 체험은 음을 통하여 인간의 일상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인간적 현상을 체험하는 일이다. 둘째, 음악의 체험은 음을 지각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신체

적, 감각적, 지적 작용이며, 따라서 음악 작품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능력은 개인의 음악적 감수성, 즉, 지각하고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 좌우된다. 셋째, 예술적인 음향현상의 체험은 인간적 성취의 경험을 구체화 하고 있는 어떤 상징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만족과 희열을 느끼게 한다. 넷째, 음악은 삶의 흐름결의 상징으로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 표현양식 속에 담겨져 나타나기 때문에 음악의 지각과 반응은 그 표현양식에 대한 이해와 반응의 질에 관련된다. 다섯째, 음악은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므로 음악적 체험은 직접적인 느낌에 의한 체험이어야 하며, 음악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악에 대하여 어떤 형태의 심미적 느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창조적인 것이면 가치 있는 것이다. 여섯째, 음악의 심미적 체험은 음 현상을 통하여 인간의 삶의 본질에 대한 통찰과 공감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그 통찰과 공감의 질과 가능성은 심미적 음악체험의 질과 범위에 따라 향상되고 확대된다(Reimer, 1989).

리머는 이러한 심미적 경험을 통하여 인간의 주관적인 세계에 대한 특별한 종류의 지식, 또는 통찰에 이르게 된다고 보며 이러한 특별한 지식은 인간의 삶의 질을 보다 풍부하고 깊이 있게 해줄 뿐 아니라 깊이 있는 자기발견을 통하여 삶의 본질을 통찰할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하였다.

III. 유아음악교육의 방향

유아음악교육은 음악교육의 영역에 속하므로 음악교육의 학문적 범주를 벗어날 수 없으며 동시에 그 대상이 유아라는 특수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유아음악교육의 방향은 음악의 본질에 관한 미학적 관점으로 절대표현주의에 근거하여 음악교육이 지향하는 바인 심미적 경험을 통하여 음악적 감수성을 계발하는 심미적 교육을 지향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의 대상이 유아이므로 유아교육의 목표인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현대 음악교육이 추구하는 심미적 음악교육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유아음악교육의 현 실태를 조명하고 유아음악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음악교육의 본질에 기초한 유아음악교육의 목적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유아음악교육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유아음악교육이 지

향하는 바는 무엇이며 이는 우리나라 유아교육현장에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는가? 과연 교사는 유아음악교육의 의미와 목적을 포함하는 본질적 가치에 대하여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유아교육현장에 충분히 반영되어지고 있는가? 물론 어떤 교육철학을 현장에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교육정책, 교사의 자질, 교육기관의 운영체제,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상호 관련되므로 명쾌한 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유아음악교육을 함에 있어서 음악교육의 목적과 가치에 대한 본질적 이해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사의 신념이 음악교육의 가치추구의 방향을 결정하므로 교사의 신념이 어떠한가에 따라 교육의 방향은 전혀 달라질 수 있으며, 이것이 음악교육의 계획부터 실행과 평가까지 교사역할의 전 과정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유아음악교육의 본질에 관한 질문은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교사로서 하여금 유아음악교육에 대한 확고한 교육관을 정립하게 하므로 교사는 그 실천에 있어서 확실한 의미와 가치를 느끼게 되며 성취감과 일의 동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음악교육의 목적이 심미적 음악교육이라고 할 때 우리의 유아음악교육 현실은 어떠한가? 특히 유아교육현장의 음악교육은 어떠한가? 노래부르기 활동을 포함하여 음악듣기, 음률활동, 악기다루기, 음악만들기 등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 교사의 목표는 과연 무엇인가? 교사는 활동을 통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음악활동을 계획함에 있어서 활동의 목표와 내용, 교수방법과 평가는 음악교육의 본질에 방향이 맞추어져 있는가?

유아교육기관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그러나 음악은 많은 경우에 행사나 어떤 활동을 돕는 수단으로, 혹은 어떤 행동을 기대하는 보조 수단으로 사용됨으로써 음악의 본질적 의미에서 벗어나 음악 외적인 기능에 기여하여 왔다(Kim, 2020; Lim, 2004a, 2004b, 2013; Park & Kim, 2012). 과거 우리나라 유치원에서의 음악활동은 노래부르기와 동작표현이 주를 이루었고 음악은 교육적 목적에 앞서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Kim, 2020). 사실 미적 가치는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실용적 가치들은 상대적으로 논하기 쉽고 사회의 즉각적인 관심사이므로 음악교육의 정당성이 내재적 문제보다는 외적 효용성에 더 치중되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노래는 가사내용을 통해 외적 효용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음악적인 면보다는 노랫말이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다. 즉, 특별한 행사의 취지를 고무시키거나 규칙을 강화하고 개념을 인식시키는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도구적 가치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음악교육은 음악의 본질에 충실함으로써 음악교육으로서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가져야 한다. 음악이 비음악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때 본질적으로 결코 미적일 수 없다(Chung, 2017; Yoon, 2003).

뿐만 아니라 교사교육의 측면에서 유아음악교육 관련 출판물들을 살펴보면, 과거

교사교육을 위한 유아음악교육의 교재에서 제시한 음악교육의 필요성은 음악교육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었다기보다는 유아의 음악적 능력의 발달을 포함하여 인지발달, 언어발달, 정서발달, 사회성 발달, 신체발달 등에 기여한다는 발달적 측면에서의 음악교육의 유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에 출판된 유아음악교육 관련 일부 출판물(Kim, 2020; Kwon, 2020; Lim, 2013; Park et al., 2017)은 유아음악교육의 본질과 가치를 논함에 있어 음악교육의 본질인 심미적 경험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이것을 유아음악교육철학으로 각 영역의 활동에까지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아쉬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유아음악교육 관련 연구 분야는 어떠한가? 유아음악활동의 가치를 알아보고자 하는 적지 않은 연구들이 유아의 음악활동이 유아의 정서발달이나 사회성 발달 등 다양한 발달에 기여하는지를 검증해보는 것들로서 유아음악교육의 가치를 음악의 본질적 가치 보다 부차적인 발달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 또한 유아교사들의 음악교육에 대한 신념을 조사한 연구에서 보면 교사들 대부분은 유아음악교육의 가치를 인지, 언어, 신체, 창의성, 정서 등의 발달에 있다고 봄으로써 이들 역시 유아음악교육을 발달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Kim & Han, 2004; Lee, 2004). 유아음악교육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므로 궁극적으로는 유아교육의 목표인 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유아음악교육이 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기여하게 하는 것은 음악활동이 유아의 각 영역의 발달에 기여한다는 도구적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음악교육의 본질이며 지향하는 바인 심미적 경험을 통한 심미적 교육을 충실히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결과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심미적 음악교육은 전인적 발달에 실지로 기여하는가?

2. 심미적 음악교육을 통한 유아의 전인발달

심미적 음악교육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심미감’이란 음악이 지니고 있는 미적 속성인 음의 특질들에 대하여 보다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아름다움을 향수하는 것을 말한다. 마음속 깊이 감동을 주는 음악의 힘은 심미적 차원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는 음악적 경험에 대하여 지각하고 느끼고 통합하고 사고하는 과정이

1) 최근 메타분석의 방법을 활용하여 유아음악교육 프로그램이 유아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이영애, 이경연(Lee & Lee, 2018)은 유아음악교육 프로그램 관련 다수의 연구들이 유아의 다양한 발달영역과 관련한 종속변인의 효과를 분석하였다는데 주목하여 이를 메타분석 하였다. 연구자들은 2001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에서 발행된 유아음악교육 프로그램 관련 박사논문과 학술지 논문 46편 중 유아의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22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서발달에 관한 연구가 21편, 창의성 발달 12편, 신체발달 5편, 언어발달 4편, 인지발달에 관한 연구가 1편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다(Greenberg, 1970). 이러한 인간의 지각하고 느끼고 통합하고 사고하는 능력은 인간을 정확한 느낌과 깊은 감성으로 외부세계에 반응할 수 있게 하고, 논리적이고 구조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하며, 감성과 사고의 융합을 통하여 외적 현상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존재가 되는데 기여한다. 그러므로 예술체험은 개인의 사회적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Lee, 1990; Tait & Hacck, 1984). 실제로 유아의 음악에 대한 심미적 경험은 유아로 하여금 자신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로, 이를 통하여 유아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정서적 예민함을 증진시키게 되며, 이는 유아로 하여금 성숙한 감정표현 및 감정조절을 하게함으로써 사회적 존재가 되도록 이끈다(Greenberg, 1979). 그러므로 예술적 체험으로서의 심미적 음악교육은 느낌의 다양한 표현과정을 통하여 인간의 느낌을 더 깊고 폭넓게 탐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궁극적인 가치를 통찰하고 이해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Lee, 1990). 1967년 미국 사회에서의 음악과 음악교육의 역할에 대한 논의의 장이었던 탱글우드 심포지엄(Tanglewood Symposium)에서 음악교육자들은 ‘음악이 하나의 예술로서 존중될 때 이 사회에 최대한으로 기여 한다’고 주장하였다(Mark, 1996). 이상에서 볼 때 음악의 심미적 경험은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하므로 궁극적으로는 유아교육이 지향하는 전인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

2019년에 개정 공포된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 반영된 음악의 방향을 살펴보면, 음악은 예술경험 영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누리과정에서 제시하는 예술경험의 목표는 아름다움과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인 표현을 즐기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 아래 예술경험의 교육내용은 아름다움 찾아보기,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예술 감상하기로서 예술의 한 영역인 음악교육이 ‘미적 경험’ 그 자체여야 함을 함축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즉, 유아음악교육은 예술로서의 음악교육의 본질인 심미적 경험을 통한 미적 경험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유아음악교육은 음악을 통하여 유아의 발달을 포함하는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부차적인 가치에 그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심미적 경험을 통한 음악교육의 본질적 가치에 그 목적을 둌서 인간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심미적 음악교육을 위한 교사교육

유아교육현장에서 음악교육은 어떻게 하면 미적 교육이 될 수 있을까? 음악교육은 무엇보다도 ‘음악적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음악교육이 비음악적 경험들을 조장한다면 음악교육은 결코 음악적 교육이 될 수 없다. 이것을 위한 음악의 선택은 미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교사 자신이 먼저 음악에 내포되어 있는 미적 속성인

높이, 길이, 음빛깔, 셈여림을 비롯한 빠르기, 형식, 화성 등과 같은 음의 특질을 느끼고 이해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음악의 요소들은 학습을 통하여 내면화 되어야 할 음악교육의 핵심적인 교육내용으로 이를 탐구하는 것은 음악교육의 본질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Park, 2014). 이러한 음악의 요소에 대한 느낌과 통찰은 유아로 하여금 음의 특질들에 대한 지각과 반응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에 반응하는 심미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므로 유아의 음악활동은 미적 경험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그 외의 다른 문제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활동은 미적 지각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기회의 장이어야 한다(Reimer, 1989).

유아음악교육에서 교사역할에 관심을 둔 연구자들(Kim, 2004; Ohm & Song, 2008)은 유아교사들이 음악교수내용지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음악교육을 실행함에 따라 노래부르기와 같은 표현 중심의 특정 유형의 음악활동을 주로 실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해 왔다. 또 다른 연구자들(Jang, 2007; Nam, 2015)은 교사양성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음악교육의 경우,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는 반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내용지식을 다소 소홀히 다루어 왔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교사양성과정에서 유아음악교육의 도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수학습방법을 강조한 나머지 음악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그에 기초한 교수내용지식을 비중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음악교육이 본질에서 벗어나 다른 교과에 비해 비중 있게 다뤄지지 못하는 것은 비단 교사양성과정만의 문제점이 아니다. 그동안 영유아교육 뿐만 아니라 초중등을 아우르는 학교교육에서 음악교육을 포함한 예술교육의 중요성은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의 예술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체제 내에서 수업 시수가 줄거나 선택교과에 편입되는 등 명맥만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Kim, 2010). 이에 입시 경쟁을 거쳐 교사양성과정에 진입한 예비유아교사의 음악적 선(先)경험이 다른 교과에 비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교사양성과정에서는 유아교사의 음악적 역량과 질 높은 유아음악교육을 담보하기 위해 음악교육의 본질과 그에 기초한 교수내용지식을 탐구하는데 보다 무게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I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해보면, 유아음악교육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탐구는 그

근원인 예술로서의 음악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탐구로부터 시작되며, 이를 근거로 하여 현대에 널리 지지받고 있는 음악교육철학은 ‘심미적 음악교육’이라 할 수 있다. 즉, 음악교육의 본질은 학습자로 하여금 음의 특질에 대하여 지각하고 반응할 수 있는 음악적 감수성을 계발시켜 음악의 아름다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미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심미적 교육’이라는 것이다. 유아음악교육 또한 음악교육의 영역에 속하므로 음악교육의 학문적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유아음악교육의 방향은 음악교육이 지향하는 바인 심미적 경험을 통하여 음악적 감수성을 계발하는 심미적 교육을 지향하여야 하며, 동시에 그 대상이 유아임을 고려하여 유아교육의 목표인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유아음악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유아음악관련 활동에서 유아음악교육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에 관한 확고한 철학적 기초가 부족하여 음악이 유아발달에 기여하는 부차적 효용성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사회에서 유아음악교육 분야의 성장과 더불어 유아음악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찾고 이를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는 연구 분야로 지금까지의 많은 실험연구들이 주로 음악교육의 부차적인 가치인 유아의 음악활동이 다양한 영역의 유아발달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맞춰져왔다면 앞으로의 연구는 음악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찾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 예는 유아음악교육의 목적에 대한 교사의 의식은 어떠한지? 유아음악활동이 어떻게 유아 음악의 본질적 가치에 기여하는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유아음악활동의 목표는 음악교육의 본질에 부합하며, 활동의 내용과 평가는 음악교육의 목표에 방향이 맞추어져 있는지? 이것을 위하여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술, 태도는 무엇인지? 유아 음악교육의 각 활동영역인 노래부르기, 악기다루기, 동작으로 표현하기, 음악만들기, 음악듣기 활동에서 음악교육의 본질에 부합하는 심미적 경험을 위한 실제적인 활동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탐구하는 연구이다.

둘째는 교사교육 분야로 대학의 유아교사 양성과정, 또는 교사 연수 등에서 음악교육과를 다룰 때 음악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로부터 시작하여 음악교육철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므로 음악교육의 본질에 부합하는 분명한 유아음악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전적으로 교사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자 자신이 먼저 음악교육의 본질에 대한 명확하고 확고한 신념과 철학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 더 나아가서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음악교육의 교수내용지식의 탐구와 구체적인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연구 및 실재가 병행되어야 한다. 즉, 예비교사로 하여금 음악교육철학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통하여 확고한 자기 철학을 갖게 할 뿐 아니라 음악에 대한 심미적 체험, 음악활동 체험하기, 워크숍, 수업실연 등을 통하여 실천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는 교사이다. 교사는 유아음악교육의 최 일선에서 유아를 마주하며 직접적으로 유아에게 심미적 경험을 제공하는 이로 유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라 할 수 있다. 유아에게 심미적 경험을 통하여 음악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구현하는 이인 교사에게 요구되는 가장 근본적이고 필요한 것은 교사 자신이 먼저 음악에 대한 심미적 경험을 통하여 음악적이 되는 것이다(Kim, 2017; No, 2000). 이것은 교과교육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으며 평소에 음악에 관심을 가지며 음악에 자신을 노출시킴으로 음악에 대한 미적 경험의 기회를 많이 갖는 노력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음악교육철학은 변화하는 시대의 가치를 반영하는 보다 더 다양한 의미들을 포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음악적 경험들이 개인과 공동체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사회적 가치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음악교육이 가져야 할 진정한 본질적 가치는 음악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 자체에 있다. 이 시점에서 유아음악교육에 종사하는 우리 모두는 자신이 하는 연구나 교사교육,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음악활동 지원이 음악교육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되돌아보아야 필요하며 본질적 가치와 부차적 가치가 전도되지 않도록 되돌아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

- Byun, J. Y. (2008). *A study on the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of B. Reimer*. Master thesis, Keimyung University.
- Chung, J. W. (2017). Contemplating social discourses on arts education in 21st century and implications for music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6(4), 153-174.
- Copland, A. (1959). *Music and Imagination*. Translated by Ahn, J. S. (1994). Seoul: Kyoyookbook.
- Dewey, J. (1934). *Art of experience*. New York: Milton, Balch & Company.
- Elliott, D. J. (1995). *Music matt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reenberg, M. (1979). *Your children need music: A guide for parents and teachers of young children*. Trans by Lee, K. S., & Kim, Y. J. (1991). Seoul: Gyomoonsa.
- Jang, E. (2007). *Development of the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program model*

- for in-service teachers.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Ju, D. C. (2013). Recent ideas of philosophical thinking for music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2(3), 301-328.
- Kim, C. J. (1997). *A study about the necessity of portfolio evaluation in pursuit of the essential music education*. Master thesis, Kyungwon University.
- Kim, G. S. (2012). A study on lyrics to enlarge the aesthetic experience in a singing.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1(3), 27-47.
- _____ (2013). A purview of Susanne K. Langer's art philosophy presented in B. Reimer's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1(1), 35-49.
- _____ (2018). Suggest a constructive philosophical attitude for philosophical development of music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7(1), 37-59.
- Kim, H. Y., & Han, E. H. (2004).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music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in childcare centers: Targeting daycare centers in Jeju Island. *Journal of the CheJu Tourism College*, 10, 65-80.
- Kim, J. Y. (1997). *A research on aesthetic music: The view point of absolute expressionism*. Master thesis, Dong-A University.
- Kim, K. J. (2004). *Development and effects of a program for young children's musical abilities based on comprehensive music education*. Doctoral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 Kim, S. H. (2010).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arts education and its development method*. Master thesis, Chung-Ang University.
- Kim, T. M. (2009). *A study on the philosophy of Bennett Reimer's music education*. Master thesis, Kyung Hee University.
- Kim, Y. Y. (2017). An exploration to music education for children based on the essence of art and communication.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32, 59-71.
- _____ (2020). *Introduction to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Seoul: Hakjisa.
- Kwon, D. W., Seog, M. J., Chio, E. S., & Ham, H. J. (2011). *Introduction of music education*. Seoul: Kyoyookbook.
- Kwon, O. S. (2020). *Music education for early childhood*. Goyang: Uhga.
- Langer, S. K. (1942). *Philosophy in a new key*. New York: Mentor Books.
- _____ (1953). *Feeling and form*. New York: Charls Scribner's Sons.

- Lee, E. S. (2004). A study on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in kindergarten.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1(1), 105-128.
- Lee, H. S. (1990). Modern approach to music education. Seoul: Sekwangmusic.
- Lee, S. O. (2019). *Exploring meanings and educational values of Bennet Reimer's 'aesthetic experience'*.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e, Y. E., & Lee, K. Y. (2018). A meta-analysis on the effects of music programs for young children's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7(3), 121-145.
- Lee, Y. H. (1994). A study on the essence and process of experience of the Aesthetic-import in Music.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3, 245-299.
- Leonhard, C., & House, R. W. (1972). *Foundations and principles of music education*. New York: McGraw-Hill Book Co.
- Lim, H. J. (1996). *Music education centered on the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s musicality*. Seoul: Dongmunsa.
- _____. (2004a). *A research on the children's songs preferred in Korean kindergartens*. Doctoral dissertation, Duksung Women's University.
- _____. (2004b). A Critical review of the developmental approach in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Sangji Youngseo College Journal*, 24, 211-222.
- _____. (2013).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Seoul: Paranmaum.
- Mark, M. L. (1996). *Contemporary music education* (3rd ed.). New York: Schirmer Books.
- Meyer, L. B. (1956). *Emotion and meaning in music*.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n, K. H., Kim, S. Y., Kim, Y. H., Bang, K. J., Seung, Y. H., Yang, J. M., Lee, Y. K., Lim, M. K., Jang, K. B., Cho, S. H., Ju, D. C., & Hyun, K. S. (2010). *Introduction to music education*. Seoul: Hakjisa.
- 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Guidebook of 2019 revised Nuri curriculum*.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Nam, O. S. (2015). *Development of childhood music education curriculum based on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in music in the college of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No, H. Y. (2000). *A study on the justification of music education by the approach of essential nature and value in music*.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 Ohm, J. A., & Song, J. (2008). Kindergarten teachers' recognition of musical concept and actual practices.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Instruction*, 12(2), 471-491.
- Park, H. S. (2014).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young children's Korean music education program based on Korean music element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9(2), 21-45.
- Park, H. S., & Kim, J. J. (2012). The effects of storytelling activity through musical element centered appreciation on musical ability and story composition ability of young childre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6(2), 289-310.
- Park, H. Y. (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music education and the entity of music art from the sociological point of view*. Master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Park, M. S., Lee, S. E., & Sim, H. S. (2017).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Goyang: Knowledge Community.
- Reimer, B. (1989). *A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_____. (2003). *A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Advancing the vision* (3rd ed.).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Song, J. B. (2000). *Music Education*. Seoul: Hakmunsa.
- Sung, M. Y. (2011). *A theoretical study of B. Reimer's aesthetic music education philosophy*. Master thesis, Dong-A University.
- Tait, M., & Haack, P. (1984). *Principles and processes of music education*.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Yoon, J. I. (2008).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B. Reimer's philosophy of aesthetic music education and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Master thesis, Mokpo National University.
- Yoon, Y. S. (2003). *A theoretic study on the aesthetic music education: Based on B. Reimer's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Master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